

‘통행세’ 갑질 코앞인데... 구글 인앱결제방지법 國會서 낮잠

앱마켓 사업자 결제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발의
국민의 힘 ‘신중론’에 통과 무산
과방위, 알맹이 빠진 공청회 비판도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국회의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현재까지 7개 발의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국민의 힘 측에서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



지난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윈스토어 김상돈 경영지원실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건넸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업계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9일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국내 대표 IT 콘텐츠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가 빠져 알맹이 없는 공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내 200여 IT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1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발사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 개발자 생태계와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국회는 개정안을 발의할 뿐 몇달째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오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예상되는 피해 실증자료 공개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한국 앱이 4만4000여 개인데 대부분 무료 앱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로 영향을 받는 앱은 100여 개로 전

체의 1%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는 약 25%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 및 앱·게임 개발자와 상생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다음달 8일 ‘구글플레이를 통한 수익화 시작하기’ 웨비나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경환 한국 안드로이드 앱·게임 사업개발 총괄은 “구글플레이는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개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보다 효과적인 수익화를 돕는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사의 성장 및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앱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과 상생을 위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하고, 국내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앱 생태계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SKT, 아마존과 손잡고 ‘e커머스 사업’ 혁신

“11번가서 아마존 상품 구매 가능해진다”

글로벌 유통허브 플랫폼 성장 추진

SK텔레콤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과 e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11번가에서 고객들이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12년 이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SKT와 시너지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혁신적인 고객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11번가와 아마존은 론칭 준비가 되는 대로 상세한 서비스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더 나아가 SKT는 11번가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아마존과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했다.

11

이를 통해 아마존은 11번가의 IPO 등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성과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SKT는 11번가를 ‘글로벌 유통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SKT와 함께 글로벌 e커머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셀러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SKT는 “아마존과의 글로벌 초협력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아

마존과 커머스 영역을 포함해 다양한 ICT 영역에서 시너지를 지속 창출하며 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아마존과 함께 국내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구매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마존과의 원활한 협력으로 빠른 시일 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11번가는 우리의 ‘고객제일주의(Customer Obsession)’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e커머스 사업자”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마존 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中企 절반 이상, 올 고용목표 ‘미달’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올해 과반수이상의 중소기업이 연초 계획했던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504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고용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초 신입직 고용목표를 세웠던 기업은 55.8%(281개사)였고, 경력직 고용목표를 세운 기업은 62.1%(313개사)로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과반수이

상이 올해 신입직 및 경력직 채용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올해 고용목표대로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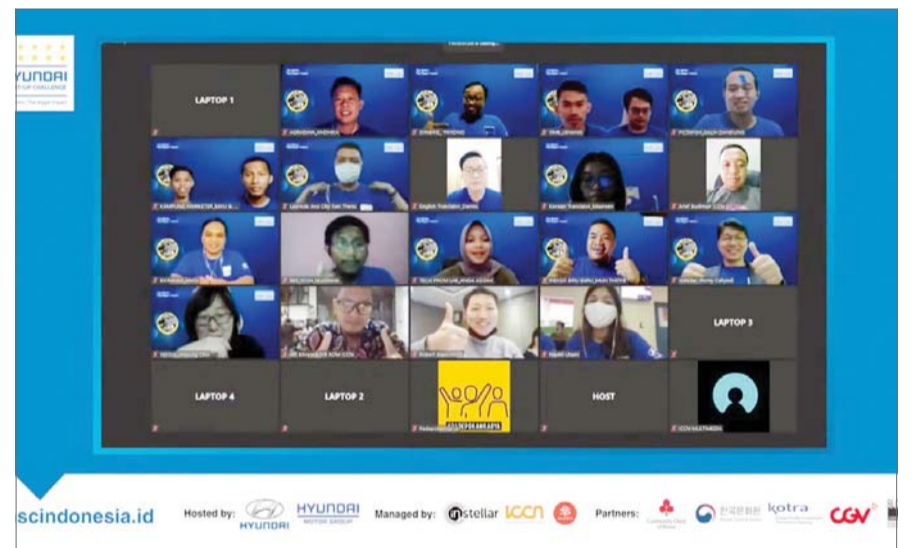
먼저 올해 신입직 채용을 계획한 기업에게 ‘올해 신입직을 계획대로 모두 충원했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 충원했다(달성+초과달성)’는 기업이 36.3%에 그쳤다. 절반이상인 63.7%가 ‘모두 충원하지 못했다(미달)’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계획대로 모두 충원하지 못한 원인을 적합한 인재가 적었

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자는 많으나 적합한 인재가 적었다’는 답변이 39.1%(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류전형은 진행했으나 이후 면접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31.8%)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채용을 시작하지 못했다(25.7%) 순으로 답변이 높았다.

그러나 올해 채용하지 못한 신입사원을 내년에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올해 채용하지 못한 신입직 인원을 내년에 채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현진 기자 lhj@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행사에 참여팀을 비롯한 현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印尼서 미래인재 육성 지원

‘스타트업 챌린지’ 온라인 시상식
10개팀 선정, 경영 컨설팅 등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데모데이 및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첫 사업성과를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환경,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꿈꾸는 청년 체인지메이커를 선발하는 이번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에는 총 316개 팀이 지원했다.

이중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각 팀당 기본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했다.

선정된 팀들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일자리 마련 위한 서비스사업 ▲밀가루 대체 식품 제조업 ▲유기 폐기물관련 친환경 사업 ▲농촌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디지털마케팅 교육사업 ▲데이터 관리를 통한 양식업 지원사업 ▲학습교재 무료 배포를 위한 출판 공유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창업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었다.

또 웨비나(컴퓨터를 이용해 실시간,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세미나와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장관, 창조경제관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창업 전문가, 투자 관계자 및 현지 다양한 분야의 약 5000명이 참관하며 미래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자동차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중으로 완공, 가동을 시작한다. /양성운 기자 ysw@